

## 중국의 섬유품 수출 급증으로 미·EU의 세이프가드 발동

2005년도에 들어가면서 WTO에 의한 쿼터 제도가 철폐되자, 중국의 섬유품이 미국·EU 등의 섬유 시장에 전년 실적의 몇 배나 되는 막대한 양이 노도처럼 밀고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섬유 업계는 충격적인 시장 혼란을 맞게 되자, 즉시 섬유협정집행위원회(CITA)에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 2005년 5월 23일자로 면 니트·셔츠/블라우스(카테고리 338/339), 면 바지(347/348), 면 및 화합섬 내의(352/652)의 3개 품목에 대하여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safe guard)를 발동하면서 중국에 2국간 협의(二國間協議)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이나 EU와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긴박해지자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4월 30일 국제무역교섭대표사무소(國際貿易交渉代表事務所)를 설립하고 경제 무역의 중요 안건 등에 대응한 무역 마찰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과 미국·유럽 간의 섬유품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쿼터 프리 체제로 순탄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자주적으로 수출을 억제함으로써 세이프가드 발동을 견제하고자 수출 관세의 신설, 수출 환부세율(還付稅率) 인하 등의 조치를 급속히 취하였다.

중국은 148개 섬유 품목 중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요 74개 품목의 수출 관세를 올리고, 수출 환부세율도 인하하였고, EU와 문제가 되고

있는 아마사(亞麻絲)의 수출 관세를 새로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EU는 중국의 수출 관세 개선 조치가 미국이나 EU의 섬유 시장이 당하고 있는 충격에 비하여 불충분한 대응 조치로 보고, 미국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5월 27일자로 제2차의 섬유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중국과의 2국간 협의를 요구하였다.

이번의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 대상은 면 코머사(카테고리 301), 남성용 면/화합섬 직물·셔츠(340/640), 화합섬 니트·셔츠/블라우스(638/639), 화합섬 바지(647/648) 등 4개 품목으로 1차분과 합하면 도합 7개 품목이 된다. EU는 27일에 T-셔츠와 아마사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규정에 의한 정식 협의를 중국에 요구하였다. 브라질도 중국 섬유품에 대하여 규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중국 섬유품에 대한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

2국간 협의는, 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열리며, 개최일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끝내야 한다. 이 협의로 쌍방이 합의하면 합의된 제한이 새로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은 5월 30일 다시 섬유품 수출 관세를 개정하여 미국 및 EU와의 무역 마찰로, 148개 품목 중 민감한 품목인 팬츠·셔츠 등의 78개 품목에 대한 수출세를 취소하고 6월 1일부터 실시하려던 일부 섬유품의 수출 관세 인상 및 인사를 모두 동시에 취소하였다. 또한 새로 설정되었던 아마사의 과세도 취소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섬유품에 대한 구미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여전히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한 중국의 반항 조치로도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번에 중국은 구미 세이프가드의 동향을 보고, 대응 조치로 6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이던 관세 조정을 변경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흥정의 술수였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세이프가드로 미국의 강력한 자세를 보고, 어차피 규제될 것이면 이들에게 수출 관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더욱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중국 메이커들에게 수출 관세는 전혀 부당한 부담이 되므로,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5월 20일에 발표한 세액 변경을 5월 30일에 일부 취소한 것은 이미 준비된 차선택으로 짐작하고 있다. ♣